하쿠산곤겐 신사

산신을 모시는 이 신사는 엔교지 절이 건립되기 전부터 몇 세기에 걸쳐 숭배되어온 장소에 있습니다. 일본의 신화 시대를 묘사한 8 세기의 책 고지키에 따르면 위대한 신인 스사노오노미코토가 이즈모로 향하던 도중에 이 산에 들렀습니다. 그의 누나는 태양의 여신 아마테라스 오미카미로서 그가 야마토 민족의 개조인 누나를 업신여겼기 때문에 추방되었습니다. 그 후 이 산은 스사노오노미코토가 살았던 장소로서 숭배되게 되었고, 엔교지 절이 건립되기 훨씬 이전부터 행자와 성인이 찾았습니다. '쇼샤잔 산'이라는 이름은 스사노오의 산이라는 뜻인 '스사잔 산'이 변화한 것이라는 설이 있습니다.

966 년에 엔교지 절의 개조 쇼쿠 대사(910~1007)가 쇼샤잔 산에 도착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수행에 몰두하겠다고 기원했고 최종적으로 이 장소에서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또 쇼쿠 대사가 천녀의 모습을 기적적으로 목격하고 여의륜관음상을 조각하여 이를 지키기 위해 마니덴(摩尼殿)을 지은 곳도 여기였다고 생각되고 있습니다. 하쿠산곤겐 신사의 상서로운 역사와, 스사노오노미코토와 엔교지 절 개조의 관계는 세대를 뛰어넘어 순례자가 방문하는 동기가 되어왔습니다. 오늘날에도 매년 1 월 18 일에 엔교지 절에서 평화와 오곡의 풍작을 기원하는 의식인 슈쇼에가 열리고 있습니다. 엔교지 절의 수호신인 오토텐과 와카텐의 가면을 쓴 신자들이 이 신사에서 어지럽게 춤을 추고, 횃불을 휘두르고, 종을 울립니다.